외대학보

개강호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88호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발행인 박정운 /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 편집장 임채린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기획] 》 4면
총학생회장단 여운을 만나다

[기획] 》 5면
이중·부전공생 수강신청 문제

[사회] 》 8면
쿠바와 76년만의 수교

[인물] 》 12면
나성호 가수를 만나다

제58대 총학생회장단이 2024년 청사진을 보여주다

지난해 11년 만의 경선으로 제58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후보 '여운'이 당선됐다. 이에 외대학보는 오창화(사회·행정 21) 총학생회장과 여찬우(서양·포르투갈 21)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4면에서 계속

지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우리학교, LG CNS와 외국어 특화 인력 채용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달 10일 서울캠퍼스 대학 본부에 위치한 이덕선 회의실에서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인 LG CNS와 외국어·글로벌 특화 인력 채용 활성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학교와 LG CNS는 △교육과정 공동 개발△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우리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채용 연계형 표준 현장 실습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LG CNS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학교의 외국어 및 글로벌 특화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약 8주간 LG CNS의 숙련된 디지털 전환 전문가들에게 직무 맞춤형 교육을 받은 후 LG CNS의 현업 부서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해 실무 역량을 쌓게 된다.

김민정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우리학교의 강점인 외국어 및 국제 분야의 인재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빼어난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우리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지역학 자산을 LG CNS와 공유해 양 기관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상엽 LG CNS 빌드센터장 상무는 "LG CNS의 디지털 전환 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이다"며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김용애 우리학교 화학과 교수, 제17대 한국자기공명학회 회장 선출

김용애 우리학교 화학과 교수(이하 김 교수)가 지난달 29일에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자기공명학회의 제56회 총회 및 동계 학술대회에서 한국자기공명학회의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는 "한국자기공명학회가 △국내 대학△산업체△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자기 공명 분야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학술 및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을 이루겠다"며 신임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김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사와 이학석사를 취득한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LG화학에서 근무한 뒤 2001년부터 우리학교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기술이전센터장△기초과학연구소 소장△교무처장△자연과학대학 학장△화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서 과학기술진흥유공 분야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자기공명분야의 학술연구 발전과 관련 기술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된 한국자기공명학회는 여러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영문학술지 'JKMRS(Journal of the Korean Magnetic Resonance Society)'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전 세계 자기공명분야 연구자들과의 국제교류 또한 활발해 2009년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 자기공명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8월엔 서울 코엑스(COEX)에서 국제 자기공명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우현 기자 07woohyun@hufs.ac.kr

우리학교, 2024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달 16일 우리학교 양 캠퍼스에서 2024년 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됐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경우 각 단과대학과 독립학부별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글로벌캠퍼스는 백년관 컨퍼런스홀(Conference Hall)에서 전체 단과대학이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대학원도 같은 날 설캠의 미네르바 콤플렉스 오바마 홀(Minerva Complex Obama Hall)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사 졸업생들과 석사 대표 졸업생에게는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이 직접 학위증을 수여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선 총 2,794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박 총장과 양인집 총동문회장(이하 양 회장) 및 교무위원들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박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학교 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창의융합인재 유전자를 바탕으로 활약하게 될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며 "타인과 나누는 아름다운 공존을 통해 글로벌 사회의 발전과 공영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우리학교의 졸업생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양 회장은 "우리는 동문이란 평생의 연줄을 갖게 됐다"며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외대의 파워'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격려했다.

▲법학관 앞에 설치된 '에어 부'의 모습

한편 설캠 총학생회에선 이번 학위수여식을 맞이해 '2024 동계 졸업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엔 졸업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학위복 대여와 학위증 수령 안내 등의 행사가 포함됐다. 학위복 수량은 지난해에 비해 71벌가량 늘어난 507벌이 준비됐으며 학생들이 사전에 대여를 신청한 후 국제학사 1층 서울캠퍼스 타운사업단 공간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신에게 맞는 학위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학위복이 마련됐다. 캠퍼스에는 △방명록△에어 부(Air Boo) 조형물△졸업 축하 플랑△포토월△포토 부스△행운 복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졸업생들이 가족이나 지인 등과 함께 학교에서의 추억을 회상하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에어 부 조형물이 설치된 포토존 앞에는 학생들의 긴 줄이 이어졌고 이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여러 유형의 사진들을 찍으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일부 학생들은 잔디광장에서 전문 사진작가와의 특별한 졸업사진 촬영 시간을 갖고 학생 개인별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학교 곳곳엔 졸업생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현수막들이 게시됐고 선후배들 간의 축하와 격려도 잇따랐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운영대학 연차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 달성

우리학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시행 이래 최초로 연차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요인으로는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정책 체감도와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글로벌 역량 강화에 특화된 거점형 프로그램 운영 실적△높은 상담 만족도△대학 본부 차원의 강력한 사업 의지△8,000여 건에 이르는 우수한 상담 건수 등이 두루 고려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의 기능적 연계를 포함한 원스톱(One-Stop)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을 지원해 대학의 취업과 창업 지원 역량 강화 및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대학은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최대 5년간 지원받으며 우수 평가를 3회 이상 받을 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진로·취업지원서비스△청년 고용정책 협력 등이 있으며 2022년 기준 전국의 116개교가 315억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학교 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 및 사회진입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수행했으며 이후 후속 사업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22년에는 일반형사업 대학에서 거점형사업 대학으로 선정돼 약 4.5억 원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았다. 또한 우리학교만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특화해 수요자 중심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운영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취업시장에 맞춰 다양한 직무 및 산업별 현직자 초청 특강과 캠프를 개최하는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또한 양 캠퍼스엔 총 12명의 진로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고 있으며 이 중 2명의 잡 매니저(job manager)가 직접적으로 취업 연계 역할을 맡아 지난 2년 동안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유지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김민정 우리학교 학생·인재개발처장은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달성은 우리학교가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거둔 의미 있는 성과이자 지속 가능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온 결과다"며 "앞으로도 우리학교의 특성을 살린 거점형 프로그램 및 지역 청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등 진로 설정과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우리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2023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학생 대학혁신 사례영상 경진대회 우수상

우리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이하 글스산)의 △신민철△이예람△정재근 씨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가 주관하는 '2023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학생 대학혁신 사례영상 경진대회'에서 팀 'Rebound: 끊임없는 도전, 뜨거운 열정' 소속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작인 'Rebound: 끊임없는 도전, 뜨거운 열정'은 세 학생이 '스포츠비즈니스창업실습' 강의를 수강하며 겪은 창업 체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이다. 해당 강좌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창업을 실현하는 실습 강의다.

팀장인 이예람 씨는 "한 학기 동안 스포츠비즈니스창업실습 강의를 수강하며 얻은 전공 지식이 창업 아이템을 고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며 "이번 수상작은 창업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 느낀 △고뇌△좌절△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창업 과정을 더 큰 기획 작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팀 'Rebound: 끊임없는 도전, 뜨거운 열정' 학생들

이들을 지도한 박성희 우리학교 글스산 교수는 "경쟁이 치열한 스포츠 산업 내에서 창업은 매우 어려운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두려움 없는 실행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한다"며 "우리학교 글스산은 그동안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해 국내 스포츠 산업을 선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창업 관련 강좌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우리학교 미디어외교센터, 월간 동북아 이슈 리포트 특별호 발표

우리학교 미디어외교센터는 지난달 31일 동북아 이슈리포트 8호를 발표했다. 해당 특별호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미국△일본△중국의 언론 보도 특성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언론의 우리나라 관련 보도를 취합한 후 주요 3개국 언론을 통한 우리나라 담론 형성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석됐다. △미중 정상회담△이스라엘-하마스 전쟁△후쿠시마 원전수 방류△한미일 정상회의△항저우 아시안게임△NATO 정상회의 등을 다뤘다. 이러한 와중 북한의 안보 위협은 더욱 심해져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언론에선 국가별로 한미일 공조 또는 한중일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었다. 먼저 미국 언론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북한 군사 무기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본 언론 역시 동일한 주제의 기사가 다수 생산됐으나 이러한 보도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으로 확인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관련 보도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적었던 중국 언론은 이러한 위협의 원인을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 등으로 해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관련 이슈로 보았던 중국 언론은 다른 언론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보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들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미일 세 국가 모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League Of Legend World Championship)△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2023 FIFA 여자 월드컵 등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보도가 다수 등장하며 이러한 큰 이벤트가 가진 외교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채린 기자 06chaelin@hufs.ac.kr

동계방학 도서관 운영 시간 단축,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동계방학 기간 동안 단축된 도서관 자료실 운영시간으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종종 올라왔다. 이에 △동계방학 중 양 캠퍼스(이하 양캠) 도서관의 운영 현황△운영 현황에 대한 학우들의 불편 사항△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동계방학 중 양캠 도서관 운영 현황

우리학교 홈페이지엔 양캠 도서관의 방학 중 운영시간을 방학 후 1주일 및 개강 전 2주일과 방학 1주일 후부터 개강 2주 전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경우 방학 후 1주일까지와 개강 2주 전에 △로비△스마트플라자△자료실△휴플레이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방학 후 1주일부터 개강 전 2주 전까지 위 시설들 중 로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은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한다. 해당 공간들이 학기 중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개방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4시간 가량 단축 운영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열람실의 경우 방학 기간 중에도 제2~4자유열람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며 제1자유열람실은 24시간 개방한다는 점에서 학기 중과 동일한 운영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에도 △일반자료실△전자정보자료실△정기간행물실△학위논문실은 설캠과 동일한 운영시기 및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열람실은 학기 중에는 모두 24시간 개방되는 것과 달리 방학 중에는 제1, 2자유열람실만 24시간 개방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동계 방학 기간의 도서관 운영 시간 단축과 관련해 박준혁(융인 23)씨는 "계절학기 수업이 오후 3시까지 예정돼있어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대출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며 "방학 기간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 단축 운영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최소 계절학기 기간만이라도 운영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준하(서양어·프랑스어 21)씨는 "도서관은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서적을 접하는 공간이기에 오후 3시에 자료실 운영을 마감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운영 시간이 지난 후엔 도서 대출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현재 정책과 달리 자료실 내에 위치한 무인대출기를 활용해 희망하는 도서를 밤늦게라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야 할 방향

단축 운영 방침 배경에 대한 물음에 명형택 설캠 도서관 학술정보팀장(이하 명 팀장)은 "해당 운영 시간은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교직원들의 근로 시간 등을 규율하는 교내 근로 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도서관의 경우 타 부서와 달리 부서 내 인력의 주기적인 야근을 통해 이미 운영시간을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진 상태이다"라며 "타 부서 교직원과 경비원의 근무 시간을 고려한다면 예외적으로 도서관 내 교직원 및 경비원의 근무 시간만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방학 기간의 자료실 무인 대출 시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된 내용이기는 하나 야간에 발생하는 도난이나 자료실 내에서의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인력이 상주하지 못한다는 한계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료실 운영 시간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전자책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 양캠 자료실에 종이책으로 보관돼 있는 각종 서적들이 전자책으로 등록된다면 단축된 운영시간 내에 도서를 대여하지 못한 학우들의 불편 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도서관 무인 대출 반납기의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설캠의 경우 도서관 로비 좌측에 무인 대출 반납기를 두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로비 운영이 종료되면 해당 기계도 역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명 팀장은 "운영 방안의 개선을 검토해 본 바가 없진 않으나 해당 시스템 역시 결국은 직원이 도서를 무인 대출 기계 안에 넣어두는 과정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선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학 기간 중 도서관의 단축 운영은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도시과학자료실과 정기간행물실의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단축했으며 경희대학교는 자료열람실의 운영 시간을 오후 5시 30분까지로 단축 운영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 도서관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하고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란 점에서 개방 시간 확대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점진적으로나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우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후속보도

AI 융합대학,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지난해 5월 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에선 AI융합대학 학생 간담회가 진행됐다. 당시 외대학보 1080호의 기획기사를 통해 AI융합대학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이후 12월 12일 제57대 중앙운영위원회와 교내 부처 간의 추가 간담회를 통해 기존 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됐다. 이에 AI융합대학의 현황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I 융합대학의 현황

이번 해 우리학교 입시요강에 따르면 설캠에 설립된 Language & AI 융합학부와 Social Science & AI 융합학부의 신입생으로 각각 49명씩 모집했고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 설립된 AI 데이터융합학부와 Finance & AI 융합학부의 신입생으로 각각 50명씩 모집했다. 지난 기사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은 크게 △교강사 부족으로 인한 학습권 저해△신설 학부와 기존 학부 간의 유사·중복 문제△예산 및 재원 조달 문제△캠퍼스 내 공간 부족 문제 등이 있었다.

우선 교강사 부족 문제의 경우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Language & AI 융합학부에서 12명△Social Science & AI 융합학부에서 6명△AI 데이터융합학부에서 25명△Finance & AI 융합학부에서 6명의 교수가 참여중이다. 이중 신임교수는 각각 △1명△1명△2명△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간담회 당시 교강사 부족 문제에 대해 "AI 융합대학의 교원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 있으며 1학년 기초 과목과 2학년 기초 과목의 경우 다른 AI 관련 교원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학교 측에서도 AI융합대학의 교강사 부족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왔다.

캠퍼스 내 공간 부족 문제의 경우 기존 스터디라운지로 사용되던 교수학습개발원 1층 공간을 활용해 전자 학습 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본관 4층에는 학장실 및 학부장실을 설치하고 행정 업무와 학생 자치를 위한 공간 지원도 이루어졌다.

예산 문제의 경우 △가구 및 집기 장만에 2,500만 원△기초 기반시설 구축에 6,500만 원△디지털 관련 기반 시설 구축에 7,9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며 총 1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AI 융합대학의 정립을 위해선

첫 간담회 당시 신설학부와 기존 학과의 유사·중복학과 문제점도 함께 대두됐다. 지난 기사에선 Social Science & AI 융합학부의 경우 사회과학대학 소속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정치외교학과△행정학과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Language & AI 융합학부의 경우 ELLT학과와의 유사성 문제가 존재했다. 당시 학교 측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이후 각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바 Social Science & AI 학부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이론을 배우는 것은 맞지만 공학 기초 교과목과 빅데이터 및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이론이 중점적으로 구성돼있어 융합교육의 특성에 집중하고 있다. ELLT학과와 Language & AI 융합학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풀이된다. 한지인 Language & AI 융합학부 조교는 "두 전공이 언어공학이란 공통 분모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ELLT학과의 경우 영어학을 토대로 영어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언어 공학 계열의 수업이 개설되는 반면 Language & AI 융합학부의 경우 자연어와 음성언어데이터의 처리를 돕는 기초 기술 및 응용 기술을 교육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위와 관련해서 "ELLT학과의 경우 내규에 따라 문학사나 언어공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지만 Language & AI 융합학부의 경우 공학사를 취득하게 된다는 차이점 또한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지점들도 있다. 먼저 산학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숭실대학교(이하 숭실대) AI 융합학부의 경우 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인턴 우선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연구실 인턴십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본전공과 관계없이 AI융합대학의 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성도 보인다. 앞서 언급한 숭실대의 경우 AI융합학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전공생들이 인문 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물리와 수학 교육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어 처리라는 우리학교만의 강점을 활용하고자 신설된 만큼 학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AI 관련 학부가 신설된 것은 분명 우리학교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융합학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우리학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학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여운’ 남는 한 해를 만들 제58대 총학생회장단이 2024년 청사진을 보여주다

지난해 11월 29일 제58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에서 후보였던 ‘여운’이 당선됐다. 11년 만의 총학 경선으로 당선됐기에 여운의 행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외대학보는 이번 해 여운이 남는 모습을 보여줄 오창화(사회·행정 21) 총학생회장(이하 오 회장)과 여찬우(서양어·포르투갈어 21) 부총학생회장(이하 여 부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1. 제58대 설캠 총학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오 회장: 제57대 총학이었던 도약 또한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남아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학내 문제들과 더불어 이번 해에 예견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꼭 해결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복지 및 문화 행사를 기획해 학우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한해를 만들고자 설캠 총학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여 부회장: 지난해 서양학대학 학생회장을 맡았지만 단과대학 학생회의 노력만으로는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사 제도나 비민주적인 학생 자치 사회의 분위기 등은 단과대학 학생회로는 한계가 있었으나 설캠 총학에서 더 많은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모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설캠 총학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Q2. 여운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이 무엇인가요?

오 회장: 학생들의 교육권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공약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문화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교육권이야말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요구해야 하기에 보다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관련 공약의 구현을 위해 매주 교육정책국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학교 측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여 부회장: 추가적으로 마이크로(micro) 전공 개설이나 송도 캠퍼스 관련 문제들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 재정과 깊은 연관이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학교 측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Q3. 우리학교는 이원화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양 캠퍼스(이하 양캠) 총학 간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캠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을 해결할 때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 회장: 양캠 총학 간의 소통 부족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문제입니다. 글로벌캠퍼스의 총학생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자분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Q4. 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상대 후보였던 ‘캐치’의 공약을 수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 회장: 선거라는 것이 승리와 패배 혹은 당선자와 당선되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선거운동 본부(이하 선본) 모두가 학우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 선본이었던 캐치가 내세운 공약들 중 학우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 부회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캐치의 공약들 중 졸업 학점 축소와 같이 저희와 동일한 공약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약이더라도 캐치에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서의 방향성을 정할 때나 학내 주요 행사들을 기획할 때 캐치의 공약 자료집도 많이 참고할 예정입니다.

▲제58대 총학생회장단 ‘여운’ 로고

Q5.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세부 공약 중 ‘청량리 시장과 연합하는 전야제의 야시장’이란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공약의 세부적인 계획과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여 부회장: 최근 이상렬 청량리 종합시장 이사장과도 한 차례 면담을 마친 상태로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청량리 시장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청량리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폐점포들을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서포터즈나 번역 프로그램과 같이 시장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을 축제인 퀸쿠아트리아(Quinquatria)에서 많이 열리는 음식 부스들을 청량리 시장과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전야제에서 플리마켓(Flea Market)을 운영하는 것과같이 새로운 방향으로도 청량리 시장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Q6. 지난 총학인 ‘도약’부터 시작된 졸업학점 축소 논의에 관해 여운만이 가진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오 회장: 졸업 학점 축소 논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카드뉴스를 통해 학우분들께 알려졌어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 해 가장 큰 의제는 무전공 입학입니다. 무전공 입학이 시행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학은 교육정책국 차장과 함께 교무처장님과의 면담을 진행한 바 있는데 무전공 입학이 실행된다면 당연히 졸업 전공 학점의 축소가 이어져야 한다는 학내 교수님들의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현재 학생들이 교내 교육 과정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문학과의 경우 수강하는 학점이 많을수록 수업의 질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우분들이 생각하기에 졸업 학점 자체를 낮춰야 하는지 혹은 졸업 전공 학점이 많은 것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재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 부회장: 추가적으로 졸업 전공 학점이 축소된다면 졸업 학점도 함께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졸업 학점 축소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졸업 전공 학점을 줄일 수 없다는 교수님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무전공 입학 제도가 도입돼 광역화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졸업학점 축소에 대한 불씨를 살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Q7. 여운의 캠퍼스 시설 관리 정책과 관련해 도약이 실행하지 못했던 수련원 재개방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 회장: 제가 도약 총학생회에서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기에 대천 수련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대천 수련원은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 강원도 평창군의 연수원 시설에 관한 부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과 관련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요.

현재 총학생회는 외부 시설보단 캠퍼스 내 시설에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학습개발원의 리모델링 같은 부분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교수학습개발원 엘레베이터가 이번 해 겨울쯤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처럼 학우분들이 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 개편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Q8. 앞으로의 총학생회 운영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오 회장: 모든 학내 문제는 매년 4월에 대두되는데 해당 시기에 학교 본부 내부의 논의가 확정돼야 교육부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는 아마도 무전공 입학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를 학우분들과 잘 해결해 나가고 싶어요. 무전공 입학이 학우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활발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해가 개교 70주년인 만큼 이를 살릴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 회장: 저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선거 때부터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희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부처와 면담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들을 학우분들께 빠르게 전달하고자 노력중이니 학우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 부회장: 현재 우리학교 법인이 재정 책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도 캠퍼스에 많은 세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열악한 교내 시설 문제와 학습권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총학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를 학우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자 계획 중입니다. 학우분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지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이중·부전공생의 수강 신청 제한, 소통이 만들어내는 창구가 필요할 때

지난달 11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하 미디어) 학부의 일방적인 강의 신청 제한 통보로 해당 학부의 이중·부전공생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 학부 측에서는 1전공생의 전공필수과목(이하 전필) 수강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으나 수강 신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디어 학부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다. 이에 △이중·부전공생의 수강 신청 제한 현황△해당 문제에 대한 대립하는 입장△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이중·부전공생의 수강 신청 제한 현황

이번 우리학교 수강 신청 기간 중 일부 학과에서 이중·부전공생의 전필 및 실습 강의에 대한 수강 신청을 제한해 논란이 불거졌다. 수강 신청 기간 3주 전이었던 지난달 11일 미디어 학부 학부장실에선 '2024학년도 학부 수강 신청 요건 변경 및 교과과정 개편 안내'를 통해 이중·부전공생의 전필 및 실습 강의 신청에 대한 제한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1전공생은 정해진 수강 신청 기간에 강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중·부전공생은 전필 및 실습 강의를 수강 정정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이 공지된 이후 불만 사항이 제기되자 미디어 학부 측은 "1전공생의 전필 신청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학부 측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이중·부전공생의 신청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조정이 아니란 의견이 대두됐다. 미디어 학부의 세부 전공 중 하나인 광고·PR·브랜딩의 부전공생인 이승훈(서양어·이탈리아어 19) 씨는 "이중·부전공이라 할지라도 해당 전공의 수업을 들어 학점을 채워야 하는 입장은 본전공생과 동일한데 수강신청에 제한을 두니 졸업에 대한 막막함이 가중되는 것 같다"며 걱정을 표했다. 이러한 불만이 이어지자 미디어 학부는 일시적으로 공지 내용을 개정해 이중·부전공생의 신청을 전체학년 수강신청기간(이하 전 학년 기간)인 2월 7일에도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미디어 학부의 공지로부터 이중·부전공생의 수강 신청 제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한편 유사한 수강 신청 요건을 가진 타 학과 역시 존재했다. 경제학부의 경우 이중·부전공생 전용 분반이 개설되지 않은 강의는 학년별 수강 신청 기간에 전체 수강정원 중 일부를 1전공 학생들만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1전공생이 아닌 경우 잔여 여석에 한해서만 전 학년 기간에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역시 이러한 제한 사항을 채택한 학과가 있었다. 통계학과의 경우 △수리통계학△수리통계학연습△통계세미나△통계학개론△통계학및연습1을 제외한 모든 강의는 1전공생만 학년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었고 이중·부전공생은 전 학년 기간에만 수강 신청이 가능했다.

1. 수강신청 요건 변경

1) 전공필수 교과목 신청요건 (이중(부) 전공생은 변경기간에만 신청 가능) •서울캠퍼스 개설 과목만 대상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전학년	수강변경기간(3/4-3/8)
	2/1(목)	2/2(금)	2/5(월)	2/6(화)	2/7(수)	
기존	수강신청 대상 제한 없음					-
변경 후	미컴학부 1전공생만 신청 가능(미컴,언정,광피브,방영뉴 1전공생)					수강신청 대상 제한 없음

2) 실습 교과목 신청요건 (이중(부) 전공생은 변경기간에만 신청 가능) •서울캠퍼스 개설 과목만 대상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전학년	수강변경기간(3/4-3/8)
	2/1(목)	2/2(금)	2/5(월)	2/6(화)	2/7(수)	
기존	수강신청 대상 제한 없음					-
변경 후	해당 세부전공 1전공생만 신청 가능				미컴학부 1전공생만 신청 가능	수강신청 대상 제한 없음

▲변경 전 미디어 학부 수강신청 요건

1. 수강신청 요건 변경

1) 전공필수 교과목 신청요건 •서울캠퍼스 개설 과목만 대상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전학년	수강변경기간(3/4-3/8)
	2/1(목)	2/2(금)	2/5(월)	2/6(화)	2/7(수)	
기존	수강신청 대상 제한 없음					-
변경 후	미컴학부 1전공생만 신청 가능(미컴, 언정, 광피브, 방영뉴 1전공생)				미컴학부 이중전공생만 신청 가능 (24.01.26 수정)•	수강신청 대상 제한 없음

• 수강요건 변경, 전공필수 수강 희망하는 미컴학부 1전공생은 반드시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 중 신청 완료 바랍니다.

2) 실습 교과목 신청 요건 (이중(부) 전공생은 변경기간에만 신청 가능) •서울캠퍼스 개설 과목만 대상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전학년	수강변경기간(3/4-3/8)
	2/1(목)	2/2(금)	2/5(월)	2/6(화)	2/7(수)	
기존	수강신청 대상 제한 없음					-
변경 후	해당 세부전공 1전공생만 신청 가능				미컴학부 1전공생만 신청 가능	수강신청 대상 제한 없음

3) 실습 교과목의 세부전공 교류 인정됨 (24-1학기 이후 수강 실습과목 대상)

▲변경 후 미디어 학부 수강신청 요건

◆해당 문제에 대한 대립하는 입장

이번 미디어 학부의 이슈를 계기로 '전공생 우선 수강 신청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를 바라보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시각이 나뉘고 있다. 우리학교 이중·부전공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외대학보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총 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중·부전공생 강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57.9%였다. 1전공생의 수강 신청을 위해 이중·부전공생의 수강 신청을 제한한 방안에 대해 63.2%의 학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대로 제한에 긍정한 학생 중 71.4%는 '1전공자의 수강 신청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29.6%는 '강의를 수강하는 인원에 이중·부전공생이 집중되며 이중·부전공생 비율이 더 높은 채 강의가 개설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응답했다.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학생 중 45.5%는 '차별 대우에 따른 학생들 간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고 답했고 27.3%는 '특정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른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1전공과 겹치는 강의 때문에 이중·부전공생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의 폭이 현저히 낮다'거나 '부전공생에 대한 차별은 인정하지만 이중전공생은 1전공생과 동일하게 학과에서 선발된 학생들이므로 1전공생과 동일하게 대우해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듯 현재 이중·부전공 신청 제한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디어 학부 측에서도 내부 논의 끝에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승석 미디어 학부 조교는 "전공 수업들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1전공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기에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분반도 고려했지만 학교 규정상 개설 가능 과목 수가 제한돼서 어려웠다. 이에 관련 부서들에 개정 방향에 대해 문의했고,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수강신청 요건을 수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학생들이 겪었을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라며 학부 측의 의견을 대신 답했다. 이어 미디어 학부는 "본전공과 이중.부전공을 떠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마음은 항상 귀중하고 감사한 것이기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규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율하여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1전공생의 의견을 처음 반영하여 제도를 수정한 것이기도 하고 개설 가능한 절대적인 강좌 수가 부족하기도 해서 '본전공생의 우선수강' 기조는 유지하되 최대한 학생들이 합리적이라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개선할 예정이다. 적어도 학생들이 수강신청 계획이 불확실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후 이중전공 신청기간 이전까지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사지원팀은 "학과의 개별적인 수칙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며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방향은 없지만 학생 및 학과의 의견에 대해 최대한 협조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글캠 학사지원팀 역시 "위 주제에 대해 설캠 학사지원팀 측과 함께 소통했으며 마찬가지로 학과와 학생들을 위해 협조적으로 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미디어 학부의 이중·부전공생의 전필 및 실습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 제한은 갑작스러운 통보식 공지와 편파적인 1전공생 우대 정책으로 생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여러 학생의 이목을 끌었다. 전자의 경우 각종 변동 사항에 대한 사전 공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 간의 활발한 소통을 이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후자의 경우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관점도 다양할뿐더러 학교 측에서도 아직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학내 구성원 간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87%의 학생들이 '전반적인 강의들에 대한 공급 확대'를 그 방안이라 답했으며 그 중 △35%는 전필 축소 및 전필 외 과목 확대를△24%는 '학교와 학생들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유연한 증원과 강의 종류 확대'를△18%는 '정정 기간이 아닌 전 학년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을 방안으로 답했다. 이외에도 '제한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어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수요를 맞추기 위한 강의 개설을 최우선으로 지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중·부전공생의 수강 신청과 관련한 다른 학교의 사례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의 경우 수강 신청 일정 공지에 일괄적으로 수강 신청 일자가 표시돼 있으며 학년별 수강 신청 기간 사이에 이중·부전공생을 위한 신청 일자가 존재했다. 해당 일자엔 1전공은 물론 교양과목 강좌 또한 수강 신청이 불가하며 오직 이중·부전공생 교과목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1전공생과 이중·부전공생의 정원이 명확하게 분리돼 있기에 상호 간의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경희대의 수강 신청 제도는 의의가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이중전공생은 신입생을 위한 과목을 듣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곤 1전공생과 동일한 선상에서 수강 신청을 진행한다. 부전공생의 경우 전필 수업에 대한 수강 신청을 학년별 수강 신청일에 진행하는 반면 전공선택 수업은 전체학년 수강 신청일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학교의 수강 신청제도와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두 학교 모두 학과별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수강 신청 조건을 취한다는 점 역시 우리학교와 차별된다.

이처럼 우리학교는 학과별로 수강 신청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부 학과에선 이중전공생과 1전공생의 불편을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다. 경영대학의 경우 1전공생 우선수강은 물론 △이중전공생 우선수강 △신입생 우선수강 △1전공 및 이중전공생 우선수강 강의까지 세분화하여 제한을 두었다. ELLT학과 역시 1전공생과 이중·부전공생의 강의를 세분화해 1전공용과 이중전공용 강의를 구분하는 한편 이중전공의 전필과목을 축소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처럼 학과별로 이중전공에 대한 불만 사항을 개선하고 있듯 학교 전체의 수강 신청 시스템을 검토하고 학생과 학교 간 소통을 통해 학교 전체의 일관적이고 확고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병찬 기자 08byeongchan@hufs.ac.kr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잊지 못할 포르투갈의 추억

나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 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학교 7+1 프로그램을 통해 포르투갈 리스본 종합대학교(Universidade de Lisboa) 어학당에서 공부했다. 이전 학기까지 쉼 없이 달려왔기에 포르투갈에서 전공어 실력을 늘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깨달음을 얻고 싶어 유학을 결심했다.

우리학교 포르투갈어과 학생들은 포르투갈어를 유럽식과 브라질식으로 구분해 배우는데 나는 3년 가까이 브라질식 포르투갈어로 공부했다. 그래서 유럽식 포르투갈어를 쓰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학 생활 동안 유럽식 발음과 어휘를 익히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어학당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매일 △독해△듣기△문법△작문△회화 과목을 번갈아 수강하며 포르투갈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어학당 수업을 성실하게 수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운이 좋게도 △가나△독일△덴마크△우크라이나△인도△일본△엘살바도르(El Salvador)△중국△칠레(Chille)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 교류할 기회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선 대다수가 본인 생각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반면 유럽에선 의견 공유가 자유로운 편이다. 평생 우리나라에서만 살아 우물 안 개구리 같았던 난 이번 유학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형성할 수 있었다.

어학당 수업 외 시간은 대체로 여유롭게 보냈다. 수업이 없는 날엔 리스본(Lisbon)에 있는 칼로스트 굴벤키안 재단 정원(Jardim da Fundação Calouste Gulbenkian)에 자주 방문했다. 굴벤키안 정원은 따사로운 포르투갈의 햇빛을 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정원 안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니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약 2주간의 방학이 주어지는데 이때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경험을 쌓는 것도 좋다.

포르투갈은 유럽 내에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늦은 시간 유동 인구가 적은 장소를 피한다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다. 포르투갈은 지하철 노선을 색깔로 구분하는데 만약 리스본 종합대학교에서 공부하길 희망한다면 'Amarela(노란색)' 노선에 위치한 숙소가 편리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숙소를 구할 때 유니플레이스(Uniplace)란 플랫폼(Platform)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더 좋은 조건의 숙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결정하고 싶다면 이데알리스타(Idealista)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추천한다.

다시 한번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나는 주저 없이 포르투갈을 선택할 것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여유로운 생활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인생의 방향성도 확실히 설정할 수 있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내게 보내 준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마음 또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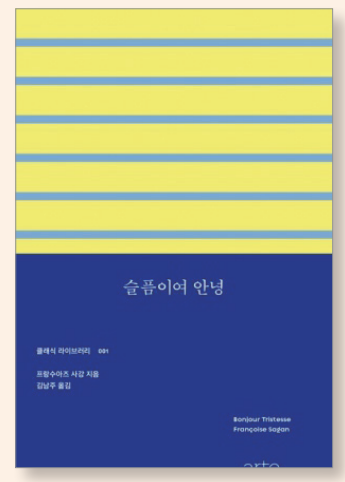
김상연(서양어 · 포르투갈어 21)

읽어서 세계속으로

프랑스

<슬픔이여 안녕>

- 차이가 아닌 다름으로부터 -



'슬픔이여 안녕'은 프랑스 작가인 프랑수아즈 사강(Françoise Sagan)의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18세란 어린 나이에 비평가상을 받아 이후 프랑스 문학계의 대표 작가로 거듭난다. 특히 남녀 간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복잡한 심리나 감정을 담담한 필체를 통해 섬세하면서도 진솔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소설은 세실(Cécille)이란 여자아이의 시점에서 전개된다. 그녀의 아버지인 레몽(Raymond)은 아내가 사망한 후 6개월마다 애인을 바꾸며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레몽이 엘자(Elsa)라는 애인과 교제를 시작한 후 세실과 함께 지중해의 한 별장으로 휴가를 가게 된다. 이때 세실의 어머니와 오랜 친구였던 안(Anne)이 별장에 방문하며 엘자는 레몽을 안에게 뺏길지도 모른단 불안감을 느낀다. 동시에 세실은 자신에게 사사건건 간섭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안에게 불만을 품는다. 특히 세실이 휴양지에서 만난 시릴(Cyrille)과 교제하는 것을 두고 연애에 대한 둘의 가치관이 대립돼 갈등이 유발된다.

이후 다 함께 참석한 무도회에서 레몽과 안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세실에게 결혼 소식을 전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자는 레몽을 떠났고 예비 엄마가 된 안은 세실의 생활에 더욱 관여하며 갈등은 극에 달한다. 안과 가족이 된다면 자유롭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세실은 안과 레몽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시릴과 엘자의 연인 연기로 질투심을 느낀 레몽은 엘자를 만나 입맞춤을 한다. 이를 목격한 안은 충격을 받아 별장을 떠나고 도망치듯 차를 운전하던 안은 결국 사고를 당해 사망한다. 한 달간의 우울한 시간을 보낸 세실은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후 가끔 안과의 추억이 떠오를 때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겉으로는 평범한 사랑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상대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란 질문을 던져준다. 모든 것을 가볍게 대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세실이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안을 만났을 때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려 했다.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울타리 내에 들어오는 것에 큰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종종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인간은 타인과 교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모두가 저마다의 환경 속에서 가치관을 형성하기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차이가 아닌 다름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개인의 가치관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PRESS

당신을 응원합니다 福

외대학보가
신입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임채린 남우현 장휘영 지유솔 김도현
이기쁨 강예원 백승준 이병찬 박진하 이승원

캘리그래피 : 서우석

스며드는 도박 중독, 위협받는 청년 세대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선 온라인 도박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은 누구나 핸드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도박 중 특히 스포츠 경기의 인기가 상승하며 불법 스포츠 토토가 퍼져나가고 있어 대학생들의 도박 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불법 도박 이용 현황△대학생 도박 중독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불법 도박 이용 현황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도박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인한 합법 도박의 유형은 △경륜△경마△경정△복권△소싸움△체육진흥투표권△카지노업(casino)으로 7가지가 존재한다. 합법 도박 외의 허가받지 않은 도박 유형은 전부 불법으로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은 온라인으로 확산돼 사람들 사이에서의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규모는 2019년도보다 26% 증가한 102조 7236억 원가량이다. 이러한 불법 도박의 대다수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실제 사감위가 발표한 지난 2023년 9월까지의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의 99%가 온라인 불법 도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규모가 확대되며 도박 중독 환자 수 역시 많이 증가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박 중독 환자 수가 2022년 기준 2,329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 약 91.2% 증가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도박 중독 환자 중에서 20~30대가 가장 많았는데 그중에서 20대는 2022년 한 해 동안 환자 증가율이 106.5%로 △30대(99.5%)△40대(89.8%)△10대(32.3%)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한편 도박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도 기준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8.2세였으나 2022년엔 17.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도박 중독 원인

이러한 도박 중독은 행위 중독의 하나로 뇌의 각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질병 중 하나다. 먼저 도박 중독자의 뇌에선 보상회로 영역인 간뇌에서 시작돼 전두엽에 이르는 도파민의 경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된다. 이로 인해 다시 도박하고 싶어지는 충동이 발생한다. 도박을 하지 않을 땐 도파민 결핍이 나타나는데 이는 우울증이나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도파민에 중독돼 도박을 계속하다 보면 신경핵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진다. 뇌의 다른 영역인 안와전두피질은 냉정한 판단력을 통해 합리적 행동을 선택하게 만드는 영역이지만 도박 중독자의 뇌는 안와전두피질이 손상돼 있어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도박 중독은 다른 중독과는 다르게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한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범죄자 범행동기' 통계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는 총 2,110건이 발생했다. 도박 중독은 처음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결국 사채나 범죄로 이어지기에 더욱 위험하고 정신적·사회적 고립을 유발할 수 있다. 온라인 도박으로 약 3,500만 원의 빚이 생긴 대학생 A 씨는 도박 중독이 심해 처음에는 돈을 잃을 때마다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주변인들과의 교류가 끊겼을 뿐만 아니라 평판 또한 나빠져 자퇴를 고민하고 있다. 도박 중독자 A 씨는 "친구들이 게임이라며 권유한 사다리 게임 등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을 접했고 결국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댔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행성 도박에 빠지게 되는 원인에 대해 심지은 서강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교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적절한 놀이△당면한 현실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회피 시도△물질주의 문화의 만연이 그 이유다.

최삼욱 진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하 최 원장)에 따르면 병원에 도박중독으로 내원하는 환자 중 20~30대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도박은 40~50대의 전유물이었지만 인터넷 발달에 따라 이러한 양상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도박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돼 불법 도박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온라인 도박 중독 상담소

또한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그 원인 중 하나다. 최 원장은 "언론과 SNS가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끄집어내 빨리 큰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단 압박감을 준다"라며 "이는 도박중독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를 설명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자신이 도박 중독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도박한 적이 있는지△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판 적이 있는지△잃어도 크게 상관없는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는지와 같은 9가지 문제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PGSI(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점검표가 존재한다. 또한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인 DSM-5에 따르면 △금단△거짓말△내성△도박에 집착△부정적 결과△조절 실패△채무△추격 도박△회피성 도박 등 9가지 항목 중 4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도박 중독이라고 진단한다. 9개 중 2개만 해당하더라도 저위험 도박 중독이라고 볼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한 단계다.

다음으로 주변인의 도움도 중요하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기에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들이 스스로 통제할 힘을 기르고 일상에 복귀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최 원장에 따르면 도박중독의 경우 비교적 증상이 가벼울 때 내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렇기에 도박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주변인이 빠르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 도박 중독은 고칠 수 없는 병이란 선입견과 달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빠르게 병원이나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실제로 최 원장은 "도박중독이 재발하는 비율은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보통 1~2년간 도박을 안 하면 재발률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박정선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도박이 자주 노출돼 대중 매체의 수용자들이 도박을 친근하게 접한다"라고 밝혔다. 명절 때 하는 화투나 카드 도박 또한 도박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따라서 도박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도박의 위험성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 또한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박 중독 상담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하지만 도박에 유입되는 경로와 중독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독자 치료 센터나 관련 전문의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023년 기준 24곳으로 2018년보다 2곳이 줄었고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4년 사이 34%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도박 중독에 대처하는 각 대학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학교 학생상담심리센터 측에 따르면 "현재 별도의 도박 전문 중독 치료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개인의 의지가 있다면 상담을 도와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경우 한국 도박문제 관리센터와 MOU(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해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대학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 중이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쿠바와 76년만의 수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지난 14일 주 유엔(UN) 쿠바(Cuba) 대표부와 우리나라 대표부는 외교 공한을 교환하고 국교를 수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래 76년만에 쿠바와 외교관계를 구축했다. 이번 수교에 대해 △우리나라와 쿠바의 관계 및 수교 현황△이번 수교의 영향△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와 쿠바 및 관계와 수교 현황

쿠바는 카리브(Caribe) 지역에 위치한 섬나라다. 우리나라와 쿠바가 본격적으로 외교를 시작했던 시기는 20세기 초반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쿠바로 건너갔던 것이 그 시초다. 그 후 1959년 쿠바 혁명으로 공산 정권이 쿠바 내에 들어서기 전까지 쿠바는 우리나라와 서로 군사 물자를 지원할 만큼 친밀한 관계였다. 그러나 피델 카스트로(Fidel Alejandro Castro Ruz) 쿠바 전 총리(이하 피델 전 총리)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우리나라는 1959년 정식 수교를 맺기 직전 쿠바와의 교류가 중단됐다. 이후 쿠바는 우리나라 대신 북한과 국교를 맺었다. 그리고 북한의 의사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국제 행사에 대부분 불참한다. 그러나 냉전 체제가 점차 무너지며 쿠바와 우리나라의 외교관계는 서서히 개선된다. 또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피델 전 총리의 사후 우리나라가 쿠바의 홍수 피해 복구 금액을 지원하는 등 여러 교류가 진행됐다. 그러던 와중 지난 14일 주 유엔 쿠바 대표부와 우리나라 대표부는 외교 공한을 교환하고 국교를 수립하며 우리나라 정부 출범 76년 만에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쿠바의 193번째 수교국이자 대사급 외교국이 됐다.

이번 수교는 삼엄한 보안 속 비밀리에 진행됐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5월 과테말라(Guatemala)에서 쿠바의 외교차관과 접촉했고 같은 해 9월엔 적극적으로 양국 간 수교를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완 주멕시코 우리나라 대사도 비공개로 쿠바 측과 여러 번 접촉해 우리나라와의 수교에 대해 여러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와 쿠바 사이의 수교 과정에 대해 쿠바 측 역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하는 외교 전략인 '로우키(low-key) 전략'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쿠바와의 수교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7일 황준국 주 유엔 우리나라 대사는 페날베르 포르탈(Peñalver Portal) 쿠바 대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수교 관련 회담 일정을 잡았다.

이와 같이 북한의 방해 공작과 반발을 의식한 우리나라 정부는 보안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먼저 지난 13일에 진행된 정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 소식이 국무위원들에게 보고됐는데 그전까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보고 받은 바가 없었다. 더불어 해당 수교 소식이 지난 14일 수교 성명 발표 당일까지 보도되지 않았으며 미국에도 수교 성명 12시간 전까지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와 쿠바 사이의 수교는 무사히 이뤄졌다.

◆이번 수교의 영향

우리나라와 쿠바의 이번 수교는 북한에게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다. 최근 북한은 쿠바에 여러 차례 고위 인사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쿠바 혁명 65주년 당시 축전을 보낼 만큼 쿠바와의 외교 관계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서방 진영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으며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로 △남예멘△덴마크△리비아

▲쿠바 아바나 거리 모습 (출처: Expedia.co.kr)

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대사관이 북한에서 축소되고 철수하는 현 상황을 북한 정부가 위기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정부 측은 쿠바와의 외교 관계가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한 것은 북한의 외교적 입지에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쿠바는 동맹국 수준에 준하는 국가다"라며 "그동안 우리나라가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 노력할 때마다 북한은 쿠바에 적극적으로 거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국 우리나라와 수교를 했다는 것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이번 수교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켜 안보적 이득을 취했다.

이번 수교를 통해 얻게 될 경제적 이익도 존재한다. 권병안 한쿠바교류협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굴지의 대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또한 쿠바나(Cubana) 항공 등 쿠바 국적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쿠바의 인적 교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쿠바 정부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와의 수교를 추진하고 있기에 향후 우리나라가 쿠바와 지금보다 더 많은 교류를 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쿠바에 있을 경우 우리나라 정부의 도움을 받기도 수월해졌다. 쿠바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2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수교 이전엔 쿠바 현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문제를 겪을 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젠 주 쿠바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하면 손쉽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쿠바 현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도쿄에 위치한 쿠바 대사관이 아닌 서울에 있는 주 한국 쿠바 대사관을 통해 양질의 영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북한 정부는 수교 성명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대한민국은 자국의 외교관계를 결정할 주권이 있다"며 쿠바와의 수교 사실에 대해 존중의 뜻을 표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입장은 발표하고 있지 않다. 스테판 뒤자릭(Stefan Dujarric)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로이터(Reuters) 통신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쿠바와 수교하게 됐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쿠바 교민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쿠바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정호현 교장은 "현지 교민들이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영사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쿠바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는 의견이 늘어남과 동시에 여행사들 역시 쿠바 관련 여행 상품을 늘리고 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수요가 충분하고 입국 규제가 완화되면 쿠바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며 "쿠바를 연계한 중남미 여행 상품은 이미 판매하고 있으며 단독 일주 상품은 상반기 중에 재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는 △경제적△문화적△안보적으로 큰 이익이 동반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교 이후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다수 남아있다. 먼저 미국의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신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STA는 미국과 체결한 무비자 입국 전자 여행 허가서다. 해당 허가서가 있으면 미국에 입국할 때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비자 관련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결된다. 그러나 미국이 아직 쿠바를 향한 경제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한 번이라도 쿠바에 입국한 기록이 있다면 평생 ESTA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무런 부담 없이 쿠바에 입국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신냉전이라고 부를 만큼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쿠바의 국가체제 성격이 일부 상이하고 쿠바는 아직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만큼 이번 수교에 안주하지 않고 쿠바와의 관계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를 보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이하 김 교수)는 "신냉전 속에서 향후 △러시아△미국△중국 중 누구도 한동안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과거 냉전 시절과 같은 흑백 논리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공간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며 "우리나라는 일종의 평화적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가치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정세가 빠르게 다각화되고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유연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www.시사 한 줄 토픽.com

정치 줄줄이 이어지는 강제 퇴장, 정당한 경호인가?

지난달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당한 경호 조치였다는 입장과 과도한 대응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와중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축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R&D(Research and Development) 예산을 복구하라는 내용을 외치다 입을 막힌 채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인권센터와 학생 및 교직원 4,456인은 'KAIST 학위수여식 대통령 경호인력의 과잉대응에 대한 성명문'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졸업생 및 그들의 가족 그리고 교수진은 찰나에 일어난 위 사건을 심히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목격했다며 대통령실에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제 대규모 전세 사기 일가, 첫 공판 진행돼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선 800여 채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이용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 일가족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으나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검토 중이니 제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피해자 모임인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회원 20여 명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임대인 정 씨 일가를 엄벌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 전문가도 감탄한 생성형 인공지능 '소라'

지난 15일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개발사인 'OpenAI'에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Sora)'를 공개했다. 소라는 하늘을 뜻하는 일본어에서 따온 이름으로 60초 내외의 동영상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다. 소라가 만든 영상은 실제 영상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인지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이었으며 각종 업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준희 성균관대 영상학과 교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들을 새로 개설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면 100명 이상의 보조 도우미를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국제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진실은?

지난 16일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 러시아 진보당 대표가 수감 도중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 연방교정청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그가 대표적인 반 푸틴 인물이었기에 그의 죽음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존 커비(John Kirby)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보좌관은 "나발니에게 일어난 일과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재를 23일경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화상 회의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 의의와 영향은?

지난달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비트코인(Bitcoin) 현물 ETF(Exchange Traded Funds)의 거래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2021년 비트코인 선물(Futures) ETF 거래 승인 이후 3년 만의 결정이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선물과 현물 모두 ETF 상장돼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임태훈 우리학교 LT학부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의 △배경△의의△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임태훈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Trade학부 교수

Q1.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은 개방형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암호화폐이며 시장가치 상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로 평가받습니다. 기존 법정화폐의 거래는 중앙 결제 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비트코인은 중앙 결제기관 없이 P2P(peer to peer network) 방식으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집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결정으로 추가 발행이 가능한 기존 법정화폐와는 달리 발행 가능한 비트코인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Q2. 지난달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해당 승인이 가능했던 이유와 배경이 궁금합니다.

SEC는 이번 승인 전까지도 지속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 요청을 받았으나 모두 불허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이번 승인 관련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가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위한 현행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 위험성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종합했을 때 SEC는 지금까지의 불허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인해 마지못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SEC (출처: Reuters)

▲비트코인 (출처: Getty Images)

Q2-1. 현물 ETF 승인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ETF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다만 기존 비트코인 ETF는 선물 기반으로 ETF에 자금이 유입되면 펀드(Fund)가 선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선물 ETF는 만기가 존재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비트코인의 현물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트래킹 에러(tracking error) 현상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의 현물가격을 따라가도록 구조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ETF에 자금이 유입되면 펀드가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펀드에 유입·유출된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Q3. 다른 알트코인(Altcoin)도 미국에서 현물 ETF 거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조차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에 알트코인이 현물 ETF 거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거래금액 통계를 분석했을 때 알트코인의 거래금액은 비트코인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또한 펀드 관리에 필요한 파생상품의 거래량도 비트코인 대비 부족하죠. 무엇보다 SEC가 암호화폐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불투명성이 심각합니다..

Q4. 최근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세를 겪으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 25개월 가량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SEC의 이번 승인이 이러한 비트코인 상승세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인가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Bloomberg News)은 이번 승인 이후 약 80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물 ETF의 구조상 새로운 펀드가 만들어져 자금이 유입되면 비트코인 현물시장의 수요까지 자연스레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SEC의 이번 승인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 비트코인이 제한적으로나마 편입될 것이란 기대심리가 확산되며 비트코인 상승세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Q5.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존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물가 상승 등 미국 달러의 역할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비트코인의 평가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유일한 암호화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심리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Q6. 미국 SEC의 이번 승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실질적 경제의 연결고리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에 따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는 최근 연구가 있지만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Q7.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죠.

Q8.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물 ETF 거래 승인의 의미는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은 관리 감독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도권 금융시장 수준의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시장 조작 행위나 펀드매니저의 일탈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제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SEC 위원장도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Q9.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심리는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투자심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 상황과 불안심리 확산에 따라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기쁨 기자 08gippeum@hufs.ac.kr

뒷담화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두 번째 시작은 초심으로

외대학보의 이번 해 첫 기사 마감이 벌써 눈앞이다. 난 이제 막 1학년을 끝마친 '초짜'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선배의 위치에 앉아 있다.

처음 외대학보에 들어올 당시 그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수습 기자 시절을 돌이켜 본다면 당시 선배 기자들이 겁을 줬던 밤샘 작업에 대해 걱정 하면서도 묘한 기대감도 있었다. 그와 동시에 외대학보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학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언론사를 향한 내 꿈에 빨리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외대학보에 들어온 후의 내 대학 생활은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 우선 외대학보에 들어오기 전 하고 있었던 활동들의 일정과 학보사의 마감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외대학보 내에서 최고의 기사를 쓰겠다는 내 당찬 포부가 무색하게도 처음 기사를 쓸 때 내 실력은 별 볼 일없었다. 그래선지 처음 기사 마감을 하고 난 후 다음 기사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것 같다.

그러나 외대학보에서 얻은 달콤씁쓸 하면서도 귀중한 경험들은 대학 생활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언론사를 미리 경험한다는 것은 물론 특히 평론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학기 외대학보에서 썼던 영화 칼럼은 내게 소중한 경험을 선사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직접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고싶은 일을 혼자서 시작하는 과정은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외대학보에서 영화칼럼을 작성하며 영화 평론가로서의 △열정△재능△한계를 모두 직면해 봤기에 나는 이 경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명 '백만 불짜리 경험'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외대학보에서 수많은 기사와 영화칼럼을 작성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하 하야오 감독)의 은퇴작이자 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만화영화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칼럼을 작성했을 때였다. 하야오 감독의 열렬한 팬이기에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칼럼을 작성할 때 느꼈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영화 칼럼은 이전에 작성된 칼럼과 겹치지 않는 영화를 평론해야 하는데 마침 내가 외대학보에 있을 때 하야오 감독의 은퇴작이 발표됐다. 이런 우연과 더불어 해당 영화의 좋은 작품성이 더해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영화 칼럼을 작성했던 시간은 외대학보에 썼던 칼럼 중 손에 꼽을 정도로 기분 좋게 작성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는 외대학보에 더욱 열중하고 싶다. 지난 학기때 겪었던 여러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처음이라 혼란스러웠던 기자 김도현이 아닌 안정적이고 노련한 기자 김도현이 되고자 한다. 물론 이런 다짐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초심 또한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다. 처음 수습기자 시절의 열정과 현재 차장 기자로서의 경험 모두 한곳에 녹아들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번 해 우리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사회생활의 소중한 첫 경험을 외대학보를 통해 경험했으면 한다.

김도현 기자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고]
농조연운(籠鳥戀雲)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해온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사전적인 의미로 답해야 할까 혹은 철학적인 사고에 입각해 그럴듯한 답변을 도출해야 할까.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단박에 "자유라는 것이지"라고 답한 이가 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Nikos Kazantzakis)의 '그리스인 조르바(Zorba)'는 작가 본인과 조르바의 모험을 담아내고 있다. '나'라는 인물은 크레타(Creta)섬의 작은 마을에서 조르바를 만난다. 조르바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나'에게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용기를 부여한다. '나'는 그와 함께 모험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삶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한다. 둘은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가끔씩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지만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한다. 그러나 둘의 여정은 시련에 직면하고 '나'는 자신의 내면과 존재에 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한다. 결국 '나'와 조르바는 각자의 길을 택하면서도 서로에게 항구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우리는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만연한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종종 주위에서 자유를 찾곤 한다. 삶을 살아가며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다. 조르바가 추구하는 자유는 우리가 알던 자유와는 다소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본인의 여가를 위해 쓰는 것과 같이 조르바의 행동 중에선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르바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결코 행하기 어려운 행위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르바의 행동들은 본인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소신이 피력된 결과다. 물론 그의 삶엔 부도덕한 부분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렇기에 조르바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닌 그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동물을 뜻한다. 어딘가에 갇혀있는 줄도 모른 채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간일까. 그러나 조르바가 자유를 추구했다고 해서 그의 자유를 추종하는 건 진정한 자유를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만의 자유를 깨닫고 이를 만끽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용기를 내고 도전해보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다. 주어진 삶에 순응하고 현재에 집중해보자.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치관에 일치하는 자유를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장휘영 기자 07hwio@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로만 J, 이스라엘. 에스콰이어'를 보고]
이상과 현실의 균형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때때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반면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현실을 사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다. 운이 좋다면 △가족△돈△명예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 힘든 삶을 살아가며 이상을 추구하는 것과 현실에 집중하는 것 중 무엇이 옳을까? 혹은 현실과 이상을 다 얻을 순 없는 것일까? 정답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영화 '로만 J, 이스라엘. 에스콰이어'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인 로만(Roman)은 동업자 윌리엄(William)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윌리엄이 혼수 상태에 빠지고 회사가 더 큰 기업에 인수돼 그는 실업자가 된다. 오로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개혁이란 이상만 바라보던 그에겐 가족도 직장도 돈도 없다. 간신히 자신의 회사를 인수한 기업에서 일하게 되지만 그마저도 그의 직설적인 성격은 동료들과의 불화를 야기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 그는 평생 이상만 바라보다 혹독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났지만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고작 공연 티켓 2장뿐이었다. 그렇게 비참함 속에 살던 그는 결국 현실과 타협한다. 자신이 변호하는 피고인의 증언을 유출한 대가로 10만 달러를 불법 수취하며 단숨에 부자가 된 것이다. 이후 비싼 수임료로 변호를 맡으며 말 그대로 '속물'이 돼간다. 그러나 그의 이런 생활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가 피고인의 증언을 유출한 대가로 돈을 받았단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불안에 떨며 도망치던 중 그는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단 것을 깨닫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개혁 문서를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한 로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발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자 한다. 하지만 결국 "나는 반대편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더욱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유죄가 아닌 이상 행위만으로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고자 합니다"라는 말을 남긴 뒤 자신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세력에 의해 죽는다.

이상을 좇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영화 속 로만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삶을 희생한 것은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 또한 돌봐야 한다. 아무리 타인에게 존경받더라도 가난에 지쳐 스스로 비참함을 느낀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로만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다. 즉 반대편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약간의 흔들림으로도 너무나 쉽게 무너졌다. 시간적 여유△최소한의 물질적 부△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은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희생해야 할 현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인 것이다.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4년도 1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활동내역** **2024년 1학기 외대학보 1089~1093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1~2회)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모집기간** **3월 1일(금)**까지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문 의** 서울캠퍼스 이병찬 기자 010-2868-1999 / 글로벌캠퍼스 김도현 기자 010-7317-8017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새로운 시작, 변화하는 학보

이번 학기 외대학보의 편집장이 돼 부담감을 안고 첫 마감을 진행했다. 정신없이 흘러간 방학 중 수습교육과 여러 행사들을 지나 드디어 개강호를 앞둔 시점이다. 이번 기수 신입기자 분들은 놀랄만큼 일에 능숙하고 글도 잘쓰신다. 이분들을 보며 나의 정기자 시절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사실 편집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부담이 클 줄은 몰랐다. 매일 새로운 곳에서 연락이 오고 나를 편집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취재를 요청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편집장이 된 나는 좀 더 신중하고자 노력하지만 마음만큼 쉽지는 않다. 자잘한 실수들이 생기더라도 다음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며 매일을 보내고 있다.

이번 외대학보 개강호에서는 지난 동계방학 동안 있었던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준기획에서는 동계방학 중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에 대해 다루며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학교측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계절학기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도서관이 오후 3시까지밖에 운영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의 불편함을 야기했다.

수강신청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수강신청 3주 전 일방적으로 이중·부전공생의 수강신청에 일부 제한을 둠으로써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비단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학교 일부 학과들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본전공생 뿐만 아니라 이중·부전공생의 수강신청에도 차질이 없게끔 개선되길 바란다.

이번 제58대 총학생회 여운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해 총학생회 측의 행보에 대해 질문했다. 여운은 지난 총학생회장단이었던 도약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학내 사안을 이번 해에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내보이며 학생들에게 총학생회를 향한 큰 관심을 부탁했다. 학내 사안은 교내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총학생회장단의 다양한 사업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그밖에도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에 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개강호인만큼 모든 기자들이 열정을 가득 품고 신문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많은 학생들이 외대학보를 읽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신입생들이 들어오며 어느덧 교내에도 벚꽃이 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설렘을 가득 안고 시작된 이번학기 학보 활동도 분명 즐거울 것이다. 첫 마감부터 나를 놀라게 할 만큼 실력있는 정기자들과 언제나 솔선수범해 나를 잘 따라주는 차장 및 부장이 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다. 외대학보를 대표해 우리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전하길 이번학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린 편집장 06chaelin@hufs.ac.kr

부엉이 메신저

나도 이제 후배 생긴다 야호!!

-선배가 된 23학번-

지니야 나랑 벚꽃 보러갈래?

-곰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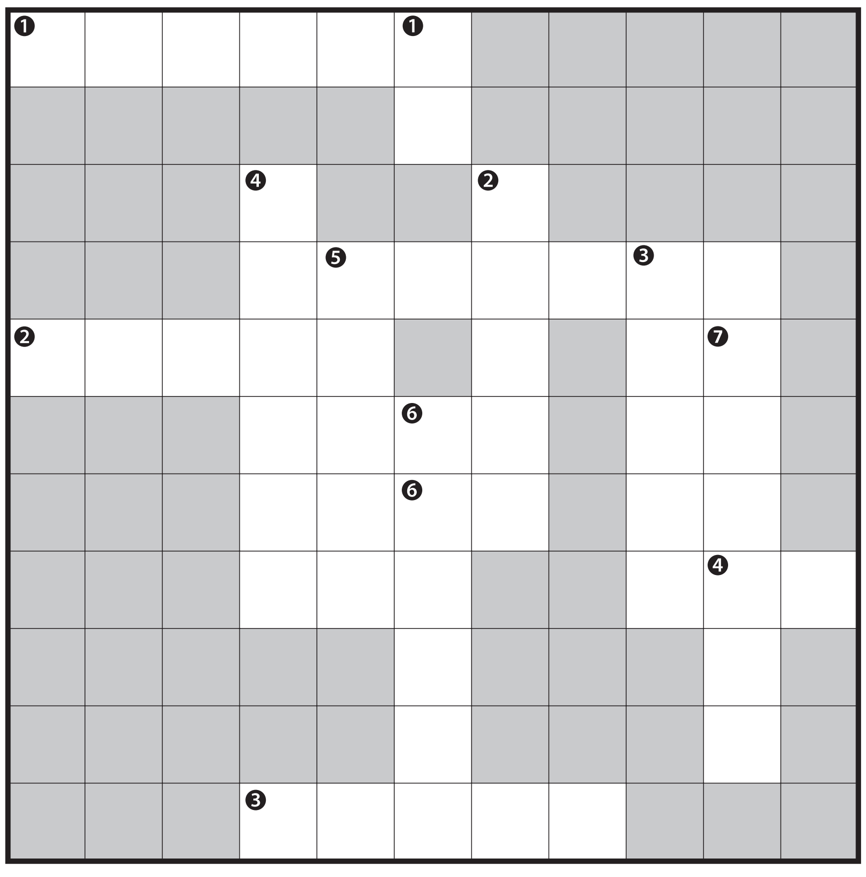
새내기 여러분들 입학 축하드립니다~ 같이 즐거운 학교생활 해봐요!

-익명-

24학번 미컴이들 환영합니다~

-21학번 미컴이-

십자말풀이



가로

1. 2024학년도부터 출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신설된 단과대학. 지난해 5월 9일 ○○○○○○ 학생 간담회가 진행됐다. (3면 참조)
2. 입학 당시의 제1전공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전공을 더 이수할 수 있는 제도. ○○○○수강생에게 제한이 있었다. (5면 참조)
3. 미디어외교센터에서 발간하는 한국에 대한 미중일 언론의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 우리학교 미디어외교센터는 월간 ○○○○○ 리포트 특별호를 발표했다. (2면 참조)
4. 서울캠퍼스 제58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은 ○○이다. (4면 참조)
5. 서울캠퍼스 도서관의 이름은 ○○○○○○○이다. (3면 참조)
6. 카리브 지역에 위치하며 최근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국가. ○○와의 76년만의 국교 수립 (8면 참조)

세로

1.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 우리학교는 지난달 16일 전기 ○○수여식이 개최됐다.
2. 2009년에 처음 발행된 암호화폐로 최근 미국 SEC에서 현물 ETF 거래 승인. 미국의 ○○○○ 현물 ETF 승인. (9면 참조)
3.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춘 언어능력 배양을 위해 개교와 함께 출범한 프랑스어, 독일어, 노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스칸디나비아어의 8개 언어 학과로 구성된 단과대학
4. 자기공명분야의 학술연구 발전을 위해 창립된 학회. 김용애 우리학교 화학과 교수가 제17대 한국○○○○○○ 회장 선출 (1면 참조)
5. 스포츠 베팅. 스포츠 경기의 인기가 상승하며 불법 ○○○○○가 퍼져나가고 있다. (7면 참조)
6. 우리학교 가을 축제 ○○○○○○ 개최 (4면 참조)
7. 프랑수아즈 사강이 1954년 18세의 나이로 발표한 소설, '차이가 아닌 다름으로부터, ○○○○ ○○' (6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반론보도

1084호 '치열한 취업 준비, 아쉬운 학생 지원' 에 대한 반론보도

지난 외대학보 1084호 기획 기사에선 우리학교 공공인재개발원(이하 공개원)에 대한 기사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6월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제기된 연구실원 선발 과정에 대한 불만을 계기로 현재 우리학교 공개원의 선발 방식을 취재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제기됐던 기관은 학생들이 신입 연구실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위 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친분이 개입될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기사에선 선발 과정에 대한 문제는 특정 공개원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학교 대다수의 공개원에서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취재했다. 이는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재학생 대비 공개원에 소속된 학생의 비율이 적은 탓과 더불어 연구실원 선발을 학교측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연구실장이 주도적으로 맡아 진행하기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공개원 선발 과정에 대해서 합격 기준이나 학생별 취득 점수와 같은 공개원만의 개인정보를 일일이 밝힐 수 없기에 이러한 논란이 제기됐다.

외대학보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기획 5

치열한 취업 준비, 아쉬운 학생 지원

우리학교 공공인재개발원(이하 공개원)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병행하며 공무원 또는 전문직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취업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전문직 직업에 대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개원의 운영이 아쉽다는 여론 역시 존재하는 실정이다. △우리학교 공개원 운영 현황△문제와 그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공개원 운영 현황

우리학교에선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모두 각각 공개원을 통해 △공무원△언론인△전문직과 같은 직업을 목표로 하는 연구실원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설캠 공개원에선 △공인회계사(CPA)시험 연구실△국립외교원시험 연구실△법학전문대학원 준비반(Pre-Law School)△언론고시 연구실△임용고시△행정·입법고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글캠 공개원에선 △관세사△공인회계·세무사△노무사△로스쿨(Law School)△변리사△법무사△외교아카데미(Academy)△행정·입법고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설캠 공공원에선 매년 12월 '공공인재 WEEK'를 통해 최근 합격자 선배를 초청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의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고시반에 합격한 연구실원에겐 △관련 시험 과목 특강·모의고사 제공△연구실원 전용 열람실 좌석△해당 시험 관련 교재구입비 및 강의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공무원 합격자 및 일부 자격증 1차 합격자에겐 고시장학금을 지원한다. △국가공무원 5급(행정·기술)△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외교관 후보자△입법부 일반직 5급△변리사 시험 1차 및 최종합격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 해당한다.

외대학보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우리학교 공개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학교 학생 중 공개원에서 모집 중인 직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6.7%의 학생이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해당 직군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개원 운영제도에 대해 학생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모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공개원의 운영방식에 대한 아쉬움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불편함과 문제의식을 느끼는 주된 요인으론 △적은 모집 인원△과도한 업무 부담△캠퍼스 간 운영 방식 차이가 있다.

◆문제와 그 원인

...히며 "수험 관련 지식을 갖춘 실원 선발 전담 직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지난 6월 에타에선 연구실원 선발과정에서 지인을 연구실에 합격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글이 게재돼 화제가 됐다. 학생들이 신입 연구실원들을 선발하는 방식이기에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됐다는 것이다. 김린아 언론고시반 실장은 "같은 학우인 실장이 문제를 출제하는 만큼 문제 유출 등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간 공개원 규모의 격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글캠 연구실의 운영인원은 24명으로 이는 설캠 연구실 운영인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글캠 공개원측은 한 연구실당 3-4명의 인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한 학기마다 공개원 인원이 전부 교체되는 것이 아니기에 한 번 인원이 선발되고 난 후엔 결원이 발생할 때에 한해 소수의 인원이 충원되는 방식인 것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A씨는 "나를 비롯해 전문직과 공무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글캠 학생이 많다"며 "현재 글캠 모집인원인 24명은 너무나도 적은 인원이라 생각한다"고 글캠의 적은 공개원 모집 인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글캠엔 언론고시반이 존재하지 않아 언론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불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언론인을 희망하는 글캠 학생은 설캠에 있는 언론고시반에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글캠에서 설캠 언론고시반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고시반 모집 인원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

...률이 높다"며 "고시반의 규모가 워낙 작기에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연구실 내 학생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역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에선 연구실장의 단순 행정업무로 인해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도교수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개원 측은 "연구실별 조교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장과 조교의 복수 존재로 인해 장학금 중복 수혜 문제가 발생하기에 각 연구실별 사정으로 인한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개원 공동 조교가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글캠 공개원의 적은 인원 운영에 대해 글캠 공개원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료된 이후 '고시 재질을 찾습니다(공직적격성평가시험(PSAT)/법학적성시험(LEET)공개시험 이벤트)'를 시행하며 학생들의 공공인재개발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공개원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언론고시반 부재의 문제에 대해선 "글캠엔 언론관련 학과가 없기에 신규개설 계획은 따로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리학교 설캠 제 57대 총학생회장 배귀주(국통·20)씨는 "학생인재개발처장과 면담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시반 확장 및 지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교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고시반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통해 우리학교 고시반 확장 필요성을 나타냈다. 현 상황에선 공개원 운영인원과 학습 환경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들이 존재하지만 학교에서도 이에 대해 개편하려는 노력들을 보인다. 타 대학교의 사례처럼 우리학교 공개원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더 나은 학습 환경이 조성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기사에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학교 공개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직후 김린아 언론고시반 실장의 인터뷰가 인용됐다. 이에 우리학교 공개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언론고시반에서 연구원 선발 과정에 비리가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언론고시반 측은 해당 기사 내용을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외대학보는 해당 내용은 우리학교 공개원의 전체적인 실정을 작성한 것이지 특정 공개원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비록 직접적으로 해당 문제가 언론고시반에서 발생한 내용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독자에 따라서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언론고시반의 우려 또한 납득할 수 있기에 이전 기사를 정정하는 것 대신 위의 반론보도를 작성하게 됐다. 이는 외대학보 1084호에서 작성된 기사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기사의 내용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언론고시반 측에서 우려하는 사안이기에 당시 외대학보에서 작성한 기사가 특정 공개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임채린 기자 06chaelin@hufs.ac.kr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6chaelin@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임채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세상을 따뜻함으로 물들여가는 노을 같은 가수 나성호 를 만나다

나성호(서양어 · 러시아어 00)는 2002년 그룹 '노을'로 데뷔한 후 22년간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곡 △그리워 그리워△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인연△전부 너였다△청혼 등을 포함한 여러 노래를 통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엔 음원 '남들은 추워도 우린 뜨거웠던 그 계절'을 발매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나성호를 만나보자.

Q1. 가수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또 잘하는 편이었죠. 특히 아버지께서 노래를 잘 부르셔서 전문적으로 배우기 전부터 노래를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Q1-1. 가수로서 어떤 유형의 음악을 추구하나요?

노을 멤버 모두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감성적인 노래뿐만 아니라 밝고 좋은 가사로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Q2. △러시아어△불어△영어△일본어△중국어△한국어까지 총 6개 국어에 능통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언어를 능숙하게 습득했던 본인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예전에 출연했던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과장돼서 기사가 나갔어요. 유창성으로 보면 전 △영어△일본어△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는 대학 시절에도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지금은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영어는 제가 카투사(KATUSA)로 있던 시절에 습득했죠. 주위 친구들처럼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연습생이 되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다 보니 그럴 수 없었어요. 이처럼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 없었던 제가 언어를 능숙하게 습득했던 비결은 외국에 나가있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어를 습득했던 방법을 예시로 들자면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루 종일 일본어가 나오는 매체를 틀어뒀습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을 언어 습득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Q2-1. 외교통상부 인턴으로 근무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인턴 시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2008년에 외교통상부 면접을 보고 선발돼 인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건국 60주년 기념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턴 생활 중 대체로 이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에 초청 메일을 보내고 어떤 국가들이 올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회의와 숙박이 모두 신라호텔에서 이뤄졌는데 객실을 확인하는 일도 했어요. 가수로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것과 유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에 출연자로서 참여하던 제가 대형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엔 어떤 과정과 일이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기에 기억에 남아요. 전반적으로 유익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Q3. 학업과 가수 활동 시기가 겹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둘의 병행이 힘들진 않았나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연습생이 되며 공부와 연습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게 됐죠. 원래 일하는 속도가 느린 편이었던 전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밖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교하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했기에 데뷔하기 전까지 고단하게 살았답니다.

Q4. 가수 활동을 하며 가장 보람찬 경험과 힘들었던 경험이 궁금합니다.

2004년 일본에서 여러 아티스트들이 모여 공연을 하는 축제인 팝아시아(Pop Asia)가 개최됐어요. 해당 축제에 노을이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그때가 어느 정도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이었는데 제가 노래 사이의 멘트들을 일본어로 유창하게 하자 이에 힘껏 환호해주는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경험으론 제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어요. 20대 중반에서 후반에 다다를 때였는데 그래선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았고 막막했어요. 일은 계속하고 싶지만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전에 소속돼 있던 회사와의 계약이 끝났고 멤버들이 군대에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원래는 제대 후에 다른 일을 하려고 했지만 감사하게도 제대할 때쯤에 멤버 4명이 모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졌습니다.

Q5. 그동안 발매된 앨범이나 곡 중 가장 애정이 가는 곡은 무엇인가요?

'전부 너였다'가 가장 애정이 가요. 지금까지 발매한 곡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노을의 노래 중에 이 곡의 가사가 가장 문학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가사와 감정에 20대 중반의 풋풋함이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Q6. 이번 해로 데뷔 22주년을 맞이했는데 오랜 가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주변에서도 오랫동안 그룹 활동을 하며 멤버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해요. 함께 지낸 세월이 길다 보니 서로 아쉬운 것도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지내게 돼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다 함께 잘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7. 사람들에게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나요?

밝고 경쾌한 노래뿐만 아니라 슬픈 노래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또 위안과 위로를 주는 가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음악은 제게도 위안과 위로를 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특히 저희 앨범의 수록곡 중에는 힘들거나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노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줬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 △용기△위로△위안 등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Q8. 가장 중요시하는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오래전부터 제 가치관이자 좌우명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확실히 무언가를 하고 싶단 의지와 확신이 있다면 길이 생기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항상 가슴 속에 담아온 전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대체적으로 잘해 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Q9. 가수의 꿈을 가진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했지만 뜻이 있다면 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오디션을 봤어요. 요즘은 공개 오디션도 많지만 예전엔 전체적으로 공개 오디션이 없었어요. 본인이 직접 기회를 찾아서 원하는 것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학교는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단 점에서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얻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길 바랍니다.

장휘영 기자 07hwio@hufs.ac.kr